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 이 글은 2023년 5월 6일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장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
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시점(2023년 7월 3일)에 지구가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과학적 증거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이면 국제지질학총회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지질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지구 역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목격하고 인식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다양한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해 이른바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해 왔지만, 그럴수록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하에서) 자연의 한계에 봉착해 왔다. 인류세는 이런 자연의 한계라는 점에서 어떤 질적 차이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증유의 사태이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시간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면 아마 지금이 가장 그럴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인류세라는 개념이 던지는 문제

인류세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인류가 커다란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

해서 지구 생태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질시대를 말한다. 지구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 및 장기적인 지속을 구분하는 지질시대에 인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인류는 극단의 프로메테우스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류세는 도리어 인류 문명의 가능조건이자 배경으로서의 환경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명칭이다.

새로운 지질시대로서의 인류세에 직면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홀로세Holocene 시기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가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보여주고 있다. 대기권 오존 고갈, 생물권의 온전함의 상실, 화학적 오염과 새로운 물질의 방출, 대양 산성화, 담수 소비 및 지구적 수자원 순환의 문제, 토지 체제의 변화, 질소와 인의 배출, 대기 에어로졸 부하 그리고 기후 변화.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환경 붕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자연사가 특유하게 안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이런 시기가 끝났다는 것.

인류세 초기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를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 구분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인간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와 다르게 훨씬 길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인류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 범위는 훨씬 짧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관조적인 태도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세 초기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 초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환경 붕괴를 목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긴 했지만(비록 홀로세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붕괴의 경향을 완화해서 거주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거주가능한 지구 환경이 일정 시기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이기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말해준다.

“인간의 웰빙 및 지구의 건강함에 위협”이 되는 기후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출되어 있다. 지구 대기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1차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라는 과제가 도출된다. 이때 완화와 적응은 기존의 사

회 체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새로운 기후 체제(climate regime)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 1.5도씨 이하라는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사실 이런 목표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지만, 더 문제는 이를 위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사 빠른 시일 내에 1.5도씨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기후 재난과 생태계 파괴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체제가 이러한 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만 완화와 적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화와 적응 자체가 인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기후 정의라는 문제들

기후 정의라는 요구 혹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가 인류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 자체가 불평등에 기초해서 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 체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세 초기의 기후 재난과 환경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에서도 가장 힘든 처지에 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먼저 산업 자본주의를 이룬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상류층이 가장 큰 책임을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류층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경 위험을 전가했다.

이런 역사적, 현재적 책임 및 부담의 전가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한한 이윤 추구 및 자본 축적을 위해 자연 자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수탈과 착취를 자기 논리로 하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현재의 기후 위기와 환경 붕괴를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에 대한 주류적인 대처 방안, 즉 기술주의적, 관료주의적, 성장주의적 방식은 ‘체제 전환’의 대가를 다시금 취약한 사람들과 자연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강자에게 건 도박’).

또한 이런 주류적 대처 방식은 여전히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으며, 기술주의적 대처 방안은 우리 모두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빠뜨릴 가능성이 크고, 관료주의적 방식이기에 인류 공동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체제 내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을 통한 생태적 전환 혹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일 것이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

오늘날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경고이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리킨다.

전환이라는 말이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건 근본적 체제 변화를 가리키건 전환이라는 말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특히 기후 변화의 원인 및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 2) 생태적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더 심오한 변화가 필요하다.
- 3) 생태적 위기는 다중적 위기 혹은 여러 사회적 위기의 일부이며, 따라서 복합적인 방식 혹은 전환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 4) 이 위기는 전 지구적이며, 따라서 인류 문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환의 과정과 목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 상의 사회적 삶의 생물리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존엄, 자유, 정의,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생태적 체제의 구성.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낳은 모든 관계의 변화를 기초로 하며, 또 이를 목표로 한다. 기존의 추출적, 산업적, 금융적 자본주의가 착취와 수탈, 억압과 지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 사이의 평등, 공존, 연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관계의 원칙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함의와 전략

모두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은 존엄과 자유와 참여의 보장 그리고 불평등의 완화를 겨냥한다.

기본소득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배 체계와는 다른 공유부의 배당이라는 새로운 분배 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기존 부의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사회적 부의(재)분배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경제 체제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힘의 강화^{empowerment} 혹은 자율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자유의 증대라고 말하건 비지배 자유의 보장이라고 말하건 이것이 겨냥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착취와 억압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체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재원이 공유부에서 나오건 기존 부의 재분배로부터 나오건 기본소득의 도입은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추출적 자본주의를 제약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경제 활동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삶을 꾸려가는 것 livelihood이 될 것이다. 경제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될 경우,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이 현실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에서 다른 정책 혹은 전반적인 체제 전환의 노력과 기본소득이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다른 제도적 배치 및 사회적 지향이 없을 경우 기본소득의 실시가 (혹은 예를 들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이)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환의 시급성이다.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은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하면서도 전반적인 조율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종의 정책 믹스 policy mix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시되어야 한다.